

2022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환영사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보험회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언론인, 정책 및 감독당국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는 보험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보험산업의 대표적인 경영세미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 팬더믹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과도 같았던 불확실성은 점차 걷혀가고 있고 ‘위드 코로나’라는 희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Post corona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진행된 보험회사 CEO설문조사에서 대다수 보험사 CEO들은 경제 정상화의 시기를 2022~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경제 정상화 이후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경제는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민간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개인보험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산업의 성장여건도 개선될 가능성

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상당한 수준이며, 최근 미국의 긴축 가능성에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보험산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이례적 고성장을 마감하겠지만, 명목 경제성장을 수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내년 보험시장의 성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보면 과거의 고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보험산업이 자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의 전개도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소비자의 생활패턴에도 변화가 있고,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는 시장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업 모형의 재조정과 더불어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품 및 판매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K_ICS(신지급여력제도)의 내실있는 시행과 더불어 판매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출현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보험산업의 본질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고민과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가 보험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내년도 보험산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기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